

불교병원·제3캠퍼스 준공 등

발걸음 힘차게 내딛길 기원



새 아침을 맞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미지를 향한 우리 동국의 발걸음이 힘차게 내딛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역경이 있었던 지난 한 해였지만, 우리 동국대학교는 내실있는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동국학술문화회관의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분당한방병원 건설, 인천 길병원의 한방병원 개원등은 특기할만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대학원 설립을 비롯한 중과, 증원은 동국발전의 토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힘찬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불교병원을 추진할 것이며 제3 캠퍼스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불교학은 물론 중앙학, 한국학등의 연구를 위한 지원이나 컴퓨터, 유선공학과 등 첨단과학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생각

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동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은 학문의 국제화와 내실화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속의 동국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은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종단등 아귀의 동국구성원들의 단합된 의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5년후에 펼쳐지게 될 21세기에 우리의 힘찬 도약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벅찬 도약을 위해서 오늘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는 보다 발전된 문명이 펼쳐지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해와 환경과 파괴 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 맑아지는 길 뿐입니다. 심성의 개발과 자아의 구현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는 동국대학교야말로 이 올바른 인성교육의 중심적 도량입니다. 그 빛나는 동국정신을 창조적 미래로 회향시키는 일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올바르게 정직한 삶을 이루려는 원행으로 새해를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그 길만이 개인적 인격도야와 사회적 완성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동국인 모두와 그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 속에서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사장 오목원 합장

동국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감사

일백주년 지향 발전계획 전개돼야



새해를 맞아 우리 대학교의 비약적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지난 일년간은 사소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성원 모두의 애심으로 그것을 헤치고 도약동국의 기틀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 바랐던 신문방송학과와 시대적 선진화인 광고학과 및 국악과를 비롯한 여러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대학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대학원도 설립하였습니다.

이 대학원의 설립이 알려지자 문화예술계에서 큰 반응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가 지니고 있는 특색과 관련된 학과와 대학원등은 일단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학과의 증설과 더불어 학부의 정원에 있어 전공 6부의 양적인 팽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0개에 이르는 학과와 2만여

명의 학생을 갖게 된 향상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이들위해 부족한 공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국학술문화회관의 건립이 새해에는 마무리되고 각종 실험실습기자의 확보와 우수교수의 확보가 있게 될으로써 96년도의 90주년에 앞서 교육여건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에 있을 대학(중합) 평가에 대비하여 모든 교육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사를 대개편하여야 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신학풍 운동'은 대개혁의 일차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부터는 2006년에 맞는 일백주년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실천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천운동의 하나로 새로운 접근과 방법으로 '일천여모금운동'과 같은 것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종래의 방법과 접근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동국가족 모두는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애교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평가와 모금운동 및 일백주년사업 계획이 순조롭게 성공을 거둘 때만이 내외적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고 세계속에 우뚝 솟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국인 모두는 새해와 더불어 그런 날을 지향하여 희망찬 미래의 첫발을 내딛는 다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총장 민병천 합장

작금은 질과 내실을 요구

책임의식 지닌 동국 구성원으로



동국인가족 여러분! 희망찬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학문과 생활 면에서 뜻한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고와 정성으로 쌓아올린 동국의 성상에 이제 하나의 단이 더 올려졌습니다. 선배들이 지금의 동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쏟은 피와 땀은 이루 행언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단과 단 사이마다 서로를 굳게 다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정열과 동국애가 합해진 강화제가 정성껏 발라졌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금이 가고, 심지어는 그 노력의 결정체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좌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선배님들에 의해, 혹은 후배들로 대를 이어 동국의 성상은 뿌리를 다지고, 부수진 파편들을 흠집없이 복구해 왔습니다. 결코 완벽한 건물이었지만 불곰의 기상이 오늘도 우리를 땀땀한 동국인으로 자부케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작업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머지않아 개교백주년의 역사를 맞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시행착오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고, 새움지마겨오 오하러 더 올래하고 튼튼한 성상을 쌓는 전회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도가 높아질수록, 동국의 위상과 역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괴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높은 장대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듯이, 계단을 쌓을수록 그 위험이 더해지듯이 동국의 정기가 그 위용을 자랑할수록 이에 따른 어려움 또한 더해질것을 각인해야 할 때입니다.

양적 팽창과 물질의 중요가 지배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작금의 세대와 정세는 양과 질에비해서는 질과 내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동국 구성원들의 맑은 바 책임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올해 계획과 위상 또한 이 기초에 세워질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10만동문을 동국발전의 주체로 북돋우며, 내부적인 학교방치에 발맞추어 후배들의 면학중도조성을 위해 일로매진 할 것입니다. 벌써 단초는 마련되었습니다. 수일내로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재학생들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남은 것은 보다 내실을 다지고 그 규모를 확장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총동창회장 황명수 합장

세계의 대학으로 자리매김, 미흡

무한한 잠재력으로 재도약해야

새해를 맞아 동국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느 한해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특히 급변하는 21세기에 있어서의 우리 대학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사회가 세계화를 지향하며 개혁과 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동국대학은 그 동인의 침체를 깨고 다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세계속의 동국대학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1월 15일에 치뤄질 총장선거는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고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힘차게 추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학은 학문을 선도하는 상아탑이어야 하며, 이 상아탑이 넓고 현실과 괴리된 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사구시하고 사회에 기여·선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고,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을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

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들은 학자적인 양식을 갖추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21세기의 주역이 되어야 할 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경쟁력... 그리고 세계화

흔들림없는 변혁추구만이 살길

입학원서 접수와 함께 올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새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창간이 갖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접수 창구에 막 내밀어진 입학원서에서 느낄 수 있는 풋풋한 설렘과 팽팽한 긴장감은 동학을 생기있게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학내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무거움도 있습니다. 지난해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의 해였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추진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역사의 흐름

을 뒤섞어 버리고, 대학은 교육개방과 교육개혁의 태풍 예보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차기 총장의 선출을 앞두고 많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가져야 했습니다.

새해는 변화의 파고가 한층 거세어질 격랑의 해일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특히 대학 사회는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내부적인 갈등이 분출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학교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했음을 우리는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이제 밖에서 몰아치

이순용
(교수회 총회장)

는 격랑에 휩쓸리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날카로운 채로 서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항상 새물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수월하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대학은 종합평가를 받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동국대학교의 지상목표가 우수한 평가를 받

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틀려버릴때 우리는 비참해 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학의 근본적인 존립 의미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뭇한 나비의 날개짓 한번에 태풍의 진로가 바뀔수도 있는 것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묘미입니다. 이제 교정에서 만나 마다 나눌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으로 격랑의 한가운데에서 의연하고 싶습니다.

김윤길
(서울캠퍼스 직원노동조합위원장)

희망찬 '95자주통일을 염원하며

89년 역사덜고 새동국 건설 다짐

합성이 들려옵니다. 통일원년 '95년 새해 희망찬 합성이 들려옵니다.

조국의 자주 통일을 염원하며, 다시한번 뜻이 해야 할 동국의 도약을 다짐하며 새해는 합성으로 다가가 옵니다.

'94년을 되돌아 봅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학기 초 학부위 선거에서부터 출원위 읍선문제에 의한 총학생회장의 사퇴와 무거운 여를 조문논쟁과 더불어 불어닥친 주사파

파동, 가을 동국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국문과 문제, 그리고 부화뇌동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학풍운동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어두운 한해였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총주호의 화재, 아원동 가스 폭발사건, 12.12.12.소유재산권 사건을 하지만 이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5월 광주영령들의 한을 깔겠노라 광주 금남로 거리를 휘저었던 동학의 깃발이, 수

◆신입생 합격소식 안내

여러분의 합격소식,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자 안내 : Tel 260-3491
260-3492

기간 : 1월22일전후

동/대/신/문/사

공 고

1995학년도 제1학기 근로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지원자격 : 가. 2-3학년 재학생으로 성적기 양호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나. 주당2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2. 접수기간 : '95.2.22(수)~2.23(목)
3. 면 접 일 : '95.2.24(금)
4. 발 표 : '95.2.28(화)오전11시
5.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 본교 장학과
6. 근무부서 : 도서관 전자계산소 비상계획과 학적과 외국어교육원 우체국 계산고시학사 여학부부처장실 이과대전산실 경상대전산실 공과대전산실 이부대교학과 취업자료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과(☎3050~3051)로 문의하시기 바람.

학 생 처 장

95년 통일원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통일 접근,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남북한의 국내정치에는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대항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1994년도 저를고 1995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1994년 어디에서 끝나고, 1995년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끊어 놓은 마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긴~새월 가운데 365일을 1년 단위로 끊어 놓고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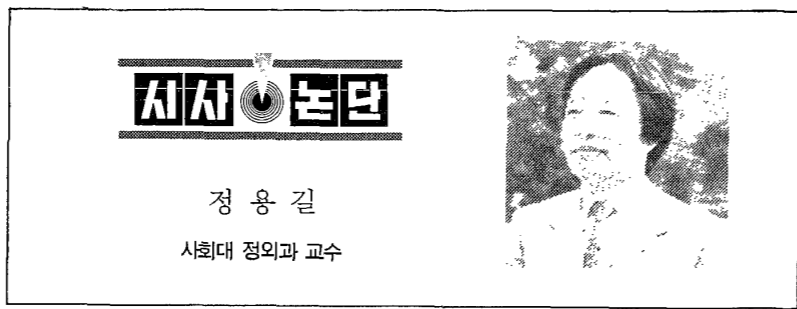
새해의 연속성 때문에 1995년의 새 해가 밝았다 하더라도 1994년의 일들이 잊혀지거나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4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1995년부터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그 일들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1994년은 한반도 분단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의 권력이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넘어간 한 해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도 북-미 협상이 열렸고, 결국에는 협상이 타결되어 남북한의 주권 강대국들에 의해 교차승인되는 가능성까지 보였던 한 해였다.

일찌기 김일성은 1995년에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통일성이 사망한 지금도 그 같은 1995년을 '통일원년'이라고 까지 하며 통일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통일이 접근할 것인가는 문제는 새 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새 해에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 해에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고 앙시키는 일엔 한층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독일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통일비관과 통일후유증증세의 확산은 우리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막연한



정용길
서혜대 정의과 교수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통일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도 문제이지만 통일에 대한 불안감의 확산은 더 큰 문제이다.

사실 우리들이 추구하는 민주화나 세계화도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주권국들에 의해 교차승인되는 상황에서 분단의 장기화는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은 꼭 이루어야만 한다.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통일부작용을 우려하여 통일을 기피하는 것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둘째, 통일운동은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었던 통일운동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허한 느낌이 든다. 그 동안 통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스스로 물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말로만 통일운동을 하였지 실천을 하지 못하였다. 새삼 그 무슨 선언이나 담화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남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고 발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새해에 남북한당국자들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대로만 실행에 옮긴다면 남북한은 1995년에 통일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말만 무성한 통일운동은 오히려 분단을 장기화 하는 일이고, 작은 일부터 하나 하나 실천하며 접근하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에 접근하는 일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통일이라는 대장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여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면서 남북한 당국들은 모두 서로 상대방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셋째, 상대방만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 남북한은 통일원년으로 자주, 평화, 민주 또는 민족대단결을 내세우고 있다. 자주와 평화의 원칙은 남북이 모두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면서 남북한 당국들은 모두 서로 상대방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시키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묵묵히 민족의 이념을 지키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일에 펼쳐 나서야 한다. 상대방의 전락에 대응한 한다면 냉전시대의 사고와 대결구조는 전혀 바뀔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과감히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한이 각 연구소에서 북한의 신문이나 잡지류의 구독을 허용하고 언론사 기자들의 북한방문 취재활동보장은 물론 북한 기자들의 남한 취재도 허용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의 변화이지만 분명히 북한의 변화는 유도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판단된다.

또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북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통일에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위의 일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한민족밖에 없다. 그리고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1995년 새 해는 우리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기르고 철저히 준비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첫째, '신학풍'을 만들기엔 기본계획이 추상적이고 단발적이다. 깨끗한 학교를 위해 언제 청소하고 개수를 개원칙도 중요하지만 몇몇 년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학원주체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계획이 수립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가 힘들다. 현관식 당일에야 총학생회장이 학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무의미하지는가?

셋째, 임기만료를 앞둔 현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신학풍운동본부의 위원장을 특정한 인원이 아닌 부총장 등의 직위로 구성돼 단기성의 운동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총학생회, 대학총합평가 등 본교에 있어 중요한 시기다. 학교발전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신학풍운동뿐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바라고자.

우리의 목표는 단발적인 학원주체간의 협의가 아니라, 학원주체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통일에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위의 일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한민족밖에 없다. 그리고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1995년 새 해는 우리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기르고 철저히 준비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발적인 학원주체간의 협의가 아니라, 학원주체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통일에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위의 일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한민족밖에 없다. 그리고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1995년 새 해는 우리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기르고 철저히 준비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사실

새해, 전동국민 화합 해야

다사다난 이라는 말을 무색하지 않게 만들었던 1994년 갑술년 한해가 저물고 올해인 새해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새해아침을 맞으면서 올 한해를 미리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동국의 4년을 책임질 총학생회가 바로 앞에 다가와 있고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95년 동국의 과제로 산적해 있다. 우선 눈앞에 닥친 대학총합평가인정과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제3캠퍼스 건설 추진등은 95년 동국을 뜨겁게 달군다는 거리로 충분하다.

특히 대학총합평가 인정제에 직면한 우리는 전 동국인의 뜻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교 당국인의 평가가 아닌 교수, 직원, 학생 3주체가 전부 참여해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반영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교 당국인의 평가가 아닌 교수, 직원, 학생 3주체가 전부 참여해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반영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과감히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한이 각 연구소에서 북한의 신문이나 잡지류의 구독을 허용하고 언론사 기자들의 북한방문 취재활동보장은 물론 북한 기자들의 남한 취재도 허용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의 변화이지만 분명히 북한의 변화는 유도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판단된다.

또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북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통일에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위의 일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한민족밖에 없다. 그리고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1995년 새 해는 우리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기르고 철저히 준비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발적인 학원주체간의 협의가 아니라, 학원주체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통일에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위의 일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한민족밖에 없다. 그리고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1995년 새 해는 우리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기르고 철저히 준비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발적인 학원주체간의 협의가 아니라, 학원주체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통일에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위의 일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한민족밖에 없다. 그리고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1995년 새 해는 우리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기르고 철저히 준비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동국만평

박진현

95(乙亥) WTO 출범.



축하합니다

명량한 학교, 충실한 강의와 연구, 자유로운 탐구... 이는 대학으로 모든 구성원이 바라는 일이며,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내에 불신과 비교육적인 학원풍토가 조성된다.

우리는 얼마나 명량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충실한 강의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자유로움이 보장되고 있는가

신학풍운동이란 무엇인가
본관 앞을 지나다 보면 '신학풍운동본부'라는 현판을 새로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1월28일 '동아내 살'이 있는 불신과 비교육적인 학원풍토를 바로잡아 교수·직원·학생이 협력하며 명량하고 깨끗하여 충실한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신학풍건설을 위한 대학신학풍운동본부가 꾸려진 것이다.

신학풍운동의 전개배경은 교수폭행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본교 이미지가 회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신학풍운동을 점검한다

학원주체간의 자발적 참여 미지수

단기성 운동 아닌 중장기 발전 계획 돼야

사건 진상이 어땠던 간에 그 사건은 인성교육의 부족과 면학의식의 결여에서 생긴 비교육적인 학원풍토의 산물로 여겨졌고 대학구성원의 자기성찰 기회를 제공했다.

각 대학의 살아남기 운동
신학풍운동은 대학의 하드웨어 부분보다 소프트웨어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직원들이 학내를 청소한다거나 올해 교양과목에 '논어와 예기' 명상과 자아등의 인성윤리과목을 개설하는 등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적인 학원풍토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운동은 타대학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려대의 '바른교육, 큰사람 만들기' 영문학과 '한양대의 '실용학풍' 중장기 발전계획, 연세대의 '기업화 전략, 이화여대의 '이화21세기' 등 독특한 화풍을 지니고 교육이념을 확립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타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시장의 개방, 정부의 차등화·자율화 정책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

에 대해 나름대로의 살아남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에 있어서 주체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원구성원들간의 단합을 통해 올바른 학원풍토 조성으로 대학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론속에 자리잡고 있는 신학풍운동은 몇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곽주영 기자)

1995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지성 한세기를 지켜온 동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 주요 사항

◆ 전기모집

- 원서교부: '94.12.20(화)~'95.1.4(수)
- 원서접수: '95.1.2(월)~1.4(수)마감
- 본고사 및 면접고사: '95.1.9(일)
- ※ 서울캠퍼스 예능계 면접일은 '95.1.8(일)

◆ 지원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동일계열 학과에 한함.
- (예·체능계 학과는 수능시험 응시계열에 구분없이 교차지원 가능함)

◆ 대학본고사

- 과목: 논술(과목 대상: 서울캠퍼스인문·자연계전학과 (서울캠퍼스 야간학과, 예능계 학과 및 경주 캠퍼스 스포츠전학과는 논술고사 없음))
- 출제유형: 단독과제형 1문항, 60분 600자 내외 (인문·자연계 분리출제)
- 배점: 100점(총점의 10%)

◆ 원서교부처

서울 및 경주캠퍼스/교부문고/종로서적/한가람문고/동화서적/서울문고/영풍문고/을지서적/세종문고/교민문고/신촌문고/영풍문고/원서문화센터/조흥은행(부산대구, 마산, 광주, 대전, 청주, 전주, 강릉, 춘천, 제주, 부평)/국민은행(수원, 인천, 강릉, 대전, 청주, 전주, 부산, 대구, 광주, 제주)/한일은행(수원, 인천, 제주, 광주, 전주, 전주, 부산, 포항, 대구, 대전, 청주, 춘천, 신사동 영인1부)/부산정보서적/대구학우서적/대구종로서적/울산문화서적/포항포교서적/전주강남서적/김천서적/안동종로서적/제주서귀포광장서적/마산학원사서적/경주일산문고/대전대문서적/목포국제서적/광주삼복서적/전주홍지서적/강릉단문서적/춘천청주서적

◆ 모집학과 및 인원

● 서울 캠퍼스

대학	계열	구분	학과	목차	전기	계
불교대학	인문	불교	불교학	4	36	40
			선학	10	20	30
문과대학	인문	언어	국어국문학	4	36	40
			영어영문학	5	45	50
이과대학	자연	수리	수리학과	4	40	40
			통계학과	4	40	40
법과대학	인문	법	법학	8	72	80
			정치외교학	4	40	40
사회과학대학	인문	사회	사회학	4	40	40
			문화학	4	40	40
경상대학	인문	경제	경제학	5	45	50
			경영학	5	45	50
생명과학대학	자연	생물	생물학	4	36	40
			생리학	4	36	40

◆ 모집학과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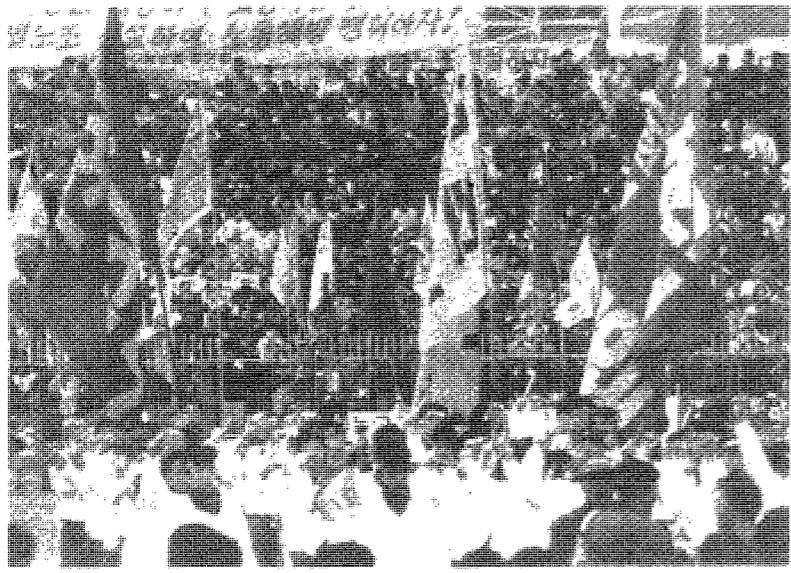
대학	계열	구분	학과	목차	전기	계
공과대학	자연	공학	전자공학	11	99	110
			컴퓨터공학	12	108	120
사범대학	인문	교육	교육학	100	60	60
			교육심리학	6	54	60
예술대학	예체능	예술	미술	12	12	12
			음악	12	12	12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	계열	구분	학과	목차	전기	계
인문과학대학	예체능	인문	한국사	12	12	12
			한국사	13	13	13
자연과학대학	자연	자연	생물학	50	50	50
			화학	30	30	30
법정대학	인문	법	법학	60	60	60
			행정학	40	40	40
상경대학	인문	경제	경제학	80	80	80
			경영학	50	50	50
한의과대학	자연	한	한의학	5	45	50
			한의학	5	45	50

동국대학교

• 서울 캠퍼스: 100-715 서울서대문구 필동 3가 26
☎ (02)260-3114(내), (02)260-3031~4(외), FAX: (02)260-3696
• 경주 캠퍼스: 780-714 경북 경주시 석림동 707
☎ (0561)770-2114(내), (0561)770-2031~4(외), FAX: (0561)770-2006



올해 한국의 노동정치(Labor Politics)는 상반기에는 전지협(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연대파업투쟁으로 불붙은 노동자대투쟁, 하반기에는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들이 쟁점이 된 해였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은 노조에 의한 교섭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 노력해왔는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측의 유연화전략과 국가의 노동운동 통제정책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실시되었다. 올해 문민정부의 노사간 임금교섭과 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한 통제정책은 과거 5, 6공화국 시기의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었다. 특히 전지협 연대투쟁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김영삼정부의 '문민독재'라고 부

◇ '94노동운동 평가와 전망

민주노총·산별노조 건설 논의 쟁점화 돼 상층단위통합 아닌 하위노동자 결합에 주력해야

도 있다. 현실적인 평균 협약임금 인상률은 94년 12월14일 현재 7.2%로 전년동기 5.2%보다 2.0%포인트 상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94년 1월-9월간 실제임금상승률은 전년동기보다 0.6% 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7% 이상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노동자가 이른바 '국가경쟁력'이라는 국가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많은 양보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임금인상을 제외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노조대표회의'가 11월 4일 출범한 것과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적용대상과 요율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11월 25일 최종확정 되었으며, 민주노총 건설을 준비해왔던 전노대가 11월 13일 해산하고 민주노총준비위를 결성한 것이다. 공공부문 노조는 최근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으로 3% 임금인상에 묶여왔다. 이에 대한 공공대처와 노조3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이미 공공부문(Public Sector)노조가 각각의 노

동운동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공부문노조의 내년이후의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의 건설과 관련하여도 공공부문노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은 실업급여는 30인으로 하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은 70인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차별화하고 요율적용도 차등화하고 있다. 고용보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최장 7개월까지 기초액의 50%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시장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개별 노동자가 해고나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고용보험제는 노동자에게 노동시장능력(Labor Market Power)을 보유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과 관련이 깊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문제도 금년에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94년에 외국인 연수생 2만명을 수입하기로 하여, 9월말 현재 1만4

천1백8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유, 신발 등의 업체에 배치하였다. 외국인 노동력의 고용은 저임금과 용역기관의 확포를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의 고용에도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사양산업의 자기혁신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민주노총 건설논의는 최근 한국노총의 '노동계 대통합'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뭇 논의와 실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과정에 대한 논쟁이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민주노총 준비위는 노동의 통합 제의에 일단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노동운동가들은 상층차원의 통합보다는 하위수준 노동자간의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는 민주노총의 건설경로의 조직내용이 구체화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 노동운동과 세계 노동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인수범 (한국산업사회 연구회 연구원·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시사 초점

사전 선거운동 발각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구당 간부가 동장·통장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현상이 적발되는 등 연발연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민자당 모의원이 다림에서 투표3장을 넣은 봉투를 은금구 통장에 게 건네주는 것을 민주자모의원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연발연시에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전달한 봉투이웃동기 성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동장을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측은 현장에서 친필서명을 증거물로 입수하여 이를 내년 서울시장 구청장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고발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적발된 2백61건에 대해 1건만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건 수사의뢰 1백여건에 대해 경고, 1백58건에 대한 주의 조치만의 미흡한 대처를 해왔다. 해묵은 비리사건으로 묻어버리기를 한해 불신을 심어온 공직자의 비리의 끝이 너무 길다. (사회부)

◇ 94년 한총련 및 학생운동 평가와 과제

대중적사업 바탕위에 학생참여폭과 깊이 확장시켜야

94년 한총련 사업에 대한 평가에 앞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둘 것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은 어떠한 자기위상을 갖고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이다. 외세에 의해서 이식된 자본주의는 천민적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을 도모하여 부의 편중된 분배는 물론이거니와 자립경제의 기본적 조건마저 갖추지 못하고, 이는 강대국들의 이해에 종속된 정치권력과 더불어 한 국가사회에서 민족적·계급적 모순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이 생존권 사수부터 정치권력에 대한 쟁투까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운동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바탕 한바탕을 거쳐 자기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운동이라면, 학생운동은 문지그대로 달성하여 그러한 운동을 학생들이 해나가는 것이다. 이말은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 먼저 정치적·사상적으로 각성된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백만 청년 학생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염두해두고 올해 한총련 사업을 평가해 볼 수 있다. 94년 제2기 한총련의 문제의식부터 보자.

UR국회비준반대투쟁으로 집중하여 한 해를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쟁으로 시작하여 투쟁으로 마감한 한해였다. 이는 신입생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 문제를 자각케 하고 자주의식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3월발령 실시되었던 백만학도 총투표에 40만 이상의 학생이 투표에 참가한 것은 학생 운동의 모범적인 전형을 창출하는 긍정적이었다. 또한 UR국회비준반대운동투쟁의 결과로 부족하긴 하지만 '이행특별법'을 국회 통과시킨것은 커다란 정치적 성과로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건설을 위한 연구·실천사업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여성여대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학원 자회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투쟁'만이 아닌 학생들의 기본적 요구-소모임 활동에서부터 학습권 보장까지-를 위해 전차하고 모범을 발굴 확산하는 모습의 부재는 한총련의 과제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한총련 올해 사업의 평가는 사실 대중들로 부터 나올수 밖에 없다. 어쩌면 그 유일한 지점이 바로 학생회 선거였다. 정치적 입장이나 노선의 차별로 결정지워졌던 이전까지의 선거양상과는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올해 선거였다. 첫째로, 쟁점의 형성이 드물고 '학생들

의 접촉'을 넓히고 대중적인 사업을 전개해왔다는 주장이 공통된 공약이었으며, 둘째는 학생들이 바라는 학생회의 역할을 밝힌 학생회는 냉정히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94년 한총련 중앙심사위원회를 맡았던 학교에서 올해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하게 학생들은 '학원의 문제나 사회·정치적 문제'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가 참여할 폭과 깊이를 확장시킬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는 각급 학생회 선거에서 한총련 개혁에 대한 공약들이 빠져나고 나왔으며, 연세대에서 '공산주의 건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진 학생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한총련 사업을 평가하는 지점은 대중들이 모야낸 목소리이다. 95년 한총련 사업의 과제는 여기서부터 나온다. 어쩌면 '통일원년'을 당위적으로 선언하고 '통일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학내문구로 협소하는 소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지지는 한총련 사업'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한총련 운동'을 위한 지극히 정미한 95년 한총련의 문제의식이 되어야 한다. (사회부)

동약로

"왜 부처님의 손모양이 모두 다르죠?" 학교주변과 박물관 경관과 a심을 둘러보던 추산국민학교 25명가량의 어린이들은 금금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다. 지난 26일부터 4일간 서울나들이를 통해 그동안 보지못했던 여러 곳을 방문했던 이들은 분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인 초창한 농촌복지어린이들이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대동제때의 주점수익금으로 보물섬 일을 고민하던중 복지어린이들을 돕는데 뜻을 함께하고 이후 디스켓 판매등으로 기금을 모았다. 처음에는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던 오성재(컴공 3)학생회장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복지어린이들에게 현상감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이뤄지는데에 열거한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영향 또한 컸다. 추산국민학교와의 인연은 열교수가 소년동아일보의 벽지·낙도등기후위원회에 가입, 3년간 신문을 보냄으로써 맺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낮에는 63빌딩이나 월드컵, 롯데월드등을 관광하고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와 부

서울나들이

모뎀게 편지쓰거나 소감문을 쓰기도 한다. 전철이 혼잡해 한 어린이를 잃어 버렸다가 뒤늦게 역무실에서 찾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던만큼 복잡한 서울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성숙한면도 엿볼 수 있었다. 담임을 맡은 유충석 교사는 "대우자동차 공장 견학시 조립공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며 "아이들이 던지는 예기치 못한 질문에 놀랄때가 많았다"고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한 "이런 기회를 제공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맨발치고!" "다람쥐야!"를 외치며 조별장기자랑에 서울에서의 마지막날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는 아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12월 학생회선거가 끝난후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학생회활동이 부재한 현실을 굳이 거론하지않더라도 자신에게 유익한 일만 찾으려는 요즘이기에 열교과 학생들의 이런 활동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김소영 기자)

외국어,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외국어에 끌려 다녀야 할지 모르겠는가? 언제까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가? 국제화시대, 무역전쟁시대의 외국어는 전쟁의 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외국어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I CAN DO IT!" 25년 동안의 현장교육을 통해 한국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파고다의 혁신적인 외국어교육 프로그램과 만나십시오. 세계 아홉나라에서 선발된 막강 엘리트 교단이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영 어	최신 영어특강 프로그램	일 본 어	독 어·불 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 12명 정원 1월 1시간 1년과정 / 전일 미국인교수	INTENSIVE S.L.E. COURSE 1월 2시간 주5회 / 2년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 / 최신교재 / 교수전일 미국인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 / 일본어작문 스크린 일러스트화 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일본인 회화 (초급 I, II, III)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문학적 일본어청취	독어 강좌 프랑스인 불어강좌 중국어 중국어강좌 스페인어강좌 러시아 인 강좌 및 모스크바투 1월 3시간 / 주 5일,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 입학

※ 문법, 독해, 작문, 발음교정, 청취 등 국내 최고 교수진

세계 4번째로 남극점 도보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진 중임이 고인경 팀장, 박희정 부팀장, 홍성택 대원 (왼쪽부터)

원한 하이테크 시선과 비쳐질 빛나는: 교수진의 힘에: -

파고다외국어학원

I CAN DO IT

1. 파고다

2. 파고다

3. 파고다

4. 파고다

5. 파고다

6. 파고다

7. 파고다

8. 파고다

9. 파고다

10. 파고다

1. 파고다

2. 파고다

3. 파고다

4. 파고다

5. 파고다

6. 파고다

7. 파고다

8. 파고다

9. 파고다

10. 파고다

1. 파고다

2. 파고다

3. 파고다

4. 파고다

5. 파고다

6. 파고다

7. 파고다

8. 파고다

9. 파고다

10. 파고다

1. 파고다

2. 파고다

3. 파고다

4. 파고다

5. 파고다

6. 파고다

7. 파고다

8. 파고다

9. 파고다

10. 파고다

중로 274-4000

중로 파고다공원 앞 빌딩

압구정 3442-4000

전철 압구정역 동인대교 끝

신촌 362-4000

이대 전철역 7번 출구 5m

강남 501-4002

강남 전철역 2번 출구 세티빌

총장선거

투표 15일

입후보자유세 7·8일

"3주체 질의로

공청회 성격 났것"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는 총장 후보 선출의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일러진대로, 후보자등록일은 1월 5일이고 투표일은 15일이며, 유세일은 서울캠퍼스 7일, 경주캠퍼스 8일로 결정했다.

각각의 일정이 진행될 장소 및 시간은 △서울캠퍼스 유세(7일)=동국관(301) 13시 △경주캠퍼스 유세(8일)=원효관 소강당 13시 △투표=서울캠퍼스 동국관(301) 13시이다. 양캠퍼스로 나누어 두차례 진행되는 후보자 유세는 교수대표 2인, 노조대표 2인, 학생대표 2인이 후보자 공약과 선거제반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이 추가된다. 교수회는 위의 사항에 따른 공문을 각층에 배포했다.

이순용 교수회장은 이에대해 "공약사항과 선거이후 공약실천에 따른 모든 것을 질의하는 공청회 성격을 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자 등록이후 본격적으로 기사화될 선거운동은 선거공명

제 실시에 따라, 입후보자의 신상, 정책, 학교발전계획이 게재된 공동공보물을 1회에 한하여 교수들에게 배포하며 개별적인 유인물이나 벽보, 서신등은 발송할 수 없게 됐다. 후보자가 등록을 하면 선관위는 개별자격심사를 거쳐 결격사유 유무를 판단해 1월 6일 입후보자 확정공고를 낼 예정인데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교의 건학이념에 투철하고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과선거권자의 자격이 총장후보선출기준에 적합한가 △후보등록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이나 혼탁선거를 행하였는가의 여부 △기타 총장후보자로서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교수회 선관위(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는 "입후보자의 자격사비는 선관위에서 재심하며, 후보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때는 해당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95학년도 신입생 특차모집 마무리

모집정원 늘었으나 미달현상 보여

'95학년도 본교 신입생선발 특차 전형모집이 지난 12월27일 평균 1.6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원서접수가 마감됐고 29일 면접고사를 거쳐 합격자 발표로 마무리 됐다.

작년도의 평균 경쟁률 11.9대 1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특차 전형(원호 안은 모집인원)은 △불교(4)=3 △국문(4)=9 △영문(6)=7 △법학(8)=12 △경찰행정(4)=12 △경제(6)=8 △정보관리(4)=11 △전자공(11)=10 △컴퓨터공(12)=24 △건축공(6)=5(이상 서울캠퍼스)△한외(8)=18 △외어(6)=1(이상 경주캠퍼스)등 불교학과, 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외어과 등이 미달현상을 보였다.

한편 지난 12월20일부터 원서교부가 시작된 전기모집은 △원서접수=1월2일~4일 △예비모집=인문·자연계(서울 1월8일, 경주 1월9일)

에, 체능계(서울 1월7일, 경주 1월8일) △면접고사=1월9일에 실시하고 서울캠퍼스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

한편,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체육교육과=95년 1월 8~9일 △미술학과=95년 1월 10~11일 △연극영화학과=95년 1월 9~11일(이상 서울캠퍼스) △국악과=95년 1월 10~11일(이상 경주캠퍼스)에 각각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예비합격자와 함께 발표하며 예비합격자는 '95년 2월 4일까지 등록회맹원이나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시반 장학생 선발시험 치뤄

계상고시사(사감=연기영·법학)는 지난 12월20일 고시반 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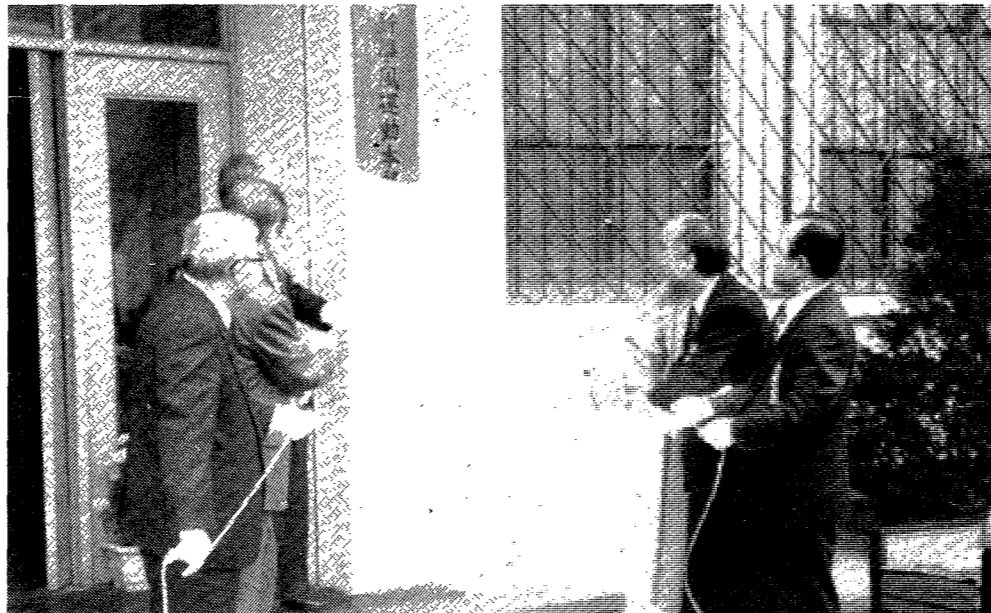
선발시험을 가졌다.

1백60여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의 과목은 고시, 학년별로 다르지만 영어, 국사, 헌법을 공통으로 5~7과목으로 이루어져있다.

또 27일 사감의 고시지도위원 9명이 합격자 결정을 위한 사정회의를 열었다.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는 합격자는 올 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주캠퍼스고시반(지도위원장은 김영중·행정학)은 95년 1학기 고시 장학금 선발시험을 지난12월17일, 20일 진흥관(B302)에서 실시했다. 선발대상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CPA선발시험=12월17일 △사시, 영시, 외시=12월20일에 치뤄졌다.

고시반관계자는 95년 개강이전인 2월말경에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량한 학교, 깨끗한 학원, 충실한 강의와 연구'등의 표어를 내건 신학풍운동본부가 지난 11월28일 본관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일부 교무위원·보직인사 단행

학교당국은 지난 11월21일 교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학생회장·문과대학장, 이부대학장의 병행으로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신설된 문화예술대학원 원장과 함께 일부 교무위원인사와 보직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교무위원 인사
 - △문화예술 대학원장=장한기(연극영화학)
 - △문과대학장=강재훈(국민윤리학과)
 - △사회과학 대학장 및 이부대학장=이홍우(경찰행정학과)
 - △학생처장=곽준규(교육학)

◇보직인사 (이상 94.11.23일자)

△비구수 수행원 사감=전호련(94.11.18일자)

△총무부처장 겸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이범수

△이과대학 교학부장 겸 문화예술대학원 교학계장=오광진 (이상 94.11.1일자)

◇직위승진

△전자계산소 운영부장 서리=김강수

△실험동장 기사장=김봉우

△전자계산소 개발계장 서리=안상호 (이상 94.12.1일자)

신학풍운동본부 발족해

"인성교육 앞장설것"

인성교육강화와 문화풍토조성을 위한 '신학풍 운동' 전개를 위한 '신학풍운동본부(본부장=송석구·부총장)결성식 및 현판식이 지난 11월 28일 본관 앞에서 있었다.

민병천총장, 황병수 총동창회장, 송석구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갑주 경주캠퍼스 부총장 및 교직원, 재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신학풍운동본부 현판식에서 총장은 "최근 발생한 반사회적 반윤리적 사회현상은 대학교육의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생긴 산물"이라며 "교수와 학생간에 자비와 존중이 넘치는 대학을 만드는 데 불교

보리수

광도중생(廣度衆生)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맞이할 양이면 가슴 벅찬 설레임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크든 작든 하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느끼는 감회와 설레임은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김없이 밀어닥치는 통과의례가 있으니 연륜의 나이테가 그 중의 하나라고 본다. 사람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유의 다소를 막론하고 배움의 척도가 높던 낮던 아무 상관없이 최소한도 해가 바뀌면 남다른 각오로 새날을 설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지구의 운행에 따라 심경의 변화나 각오를 새롭게 하지는 않으셨다. 도를 깨우친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미혹한 중생과 전성한 성인으로 분류하였고 그 성인은 역사를 보는 탁견이 있었고 사물의 진수를 꿰뚫어 보는 시각도 중생의 고통을 살펴보는 통찰력도 뛰어났던 것이다.

또 부처님은 통찰력으로 끝나지 않고 중생을 제도 하고자 하는 발원(發願)을 세우고 실천하셨으니 광도중생에서 그 위대함이 돋보인다.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우셨고 보현보살은 10대원을 세워 중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속의 부처님으로 거듭 나셨던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의 위대한 삶이

한층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종교적인 삶의 원리라면 물론 경성성불(覺性成佛)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불하신 부처님으로만 존재한다면 존재가치가 희석되리라 할 것이다. 미물을 비롯하여 일체 유주무주 연흔들까지 피안에 이르기 바라는 원력보살의 삶이야말로 실로 위대한 성자의 삶이라고 본다.

우리의 삶이 여지껏은 이기적(利己的)이고 소아적(小我的)인 탐·진·치에 얽매인 삶이었다 하더라도 율해(乙亥)년에는 구슬을 탈각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황소가 천천히 걸어도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던가?

더불어 나에게도 광도중생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원이 있다. 이번 입시에서 우수학생이 유지되고 예의범절과 범도를 아는 학생들이 신동국인이 되었으면 한다. 대학은 수업시간이 아니고 강의(講義)시간이고 교실이 아니고 강의실이다.

대학 캠퍼스에서 선택된 학생과 교수만이 일정한 공간에서의 료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선택받은 자만이 누리는 행복이다. 논하지만 하면 무슨 슬모가 있오라 불의(不義)를 누이고, 타협하지 않는 의(義)의 실천자로 성장하기를 새해에 천란이 들을 별속에 깊이 발원한다.

崔玄覺

신규교수 41명 총원

이중지원자 많아 예상수준에 못미쳐

'95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초빙 심사결과 서울 캠퍼스 19명, 경주캠퍼스 22명(일반계열5, 의과학계열7명) 등 총 41명을 총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지난 12월6일 화과심사를 마친후 총장면담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재단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이번 신규교수는 총 79명을 총원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총합평가를 앞둔 타 대학의 교수총원과 맞물려 이중지원한 지원자와 화과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보류요청이 들어온 화과로 인해 41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의 전공이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을 들어 신규교수총원보류를 요청한 화과로는 서울캠퍼스의 전산통계학과를 비롯해 경찰행정학과, 정보관리학과, 생명자원경제학과, 국어교육과, 지리교육과, 연극영화학과 및 컴퓨터공학과 1명이며 경주캠퍼스에서는 선학과, 일문학과, 전산통계학과, 경영학과, 정보산업학과 등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불교학과와 경주 '불교사회사상사'전공 1명을 총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시되지 않은 '불교학' 전공자가 화과의 요청에 의해 총 2명을 채용하게 됨에 따라 화과 학생들의 반발을 하고 있다.

또한 미술학과 학생들 역시 채용 공고에서 전공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채용과정상 특정학교 출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반발하며 서명운동을 통해 교수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지난 11월21일 교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학생회장·문과대학장, 이부대학장의 병행으로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신설된 문화예술대학원 원장과 함께 일부 교무위원인사와 보직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교무위원 인사
 - △문화예술 대학원장=장한기(연극영화학)
 - △문과대학장=강재훈(국민윤리학과)
 - △사회과학 대학장 및 이부대학장=이홍우(경찰행정학과)
 - △학생처장=곽준규(교육학)

◇보직인사 (이상 94.11.23일자)

△비구수 수행원 사감=전호련(94.11.18일자)

△총무부처장 겸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이범수

△이과대학 교학부장 겸 문화예술대학원 교학계장=오광진 (이상 94.11.1일자)

◇직위승진

△전자계산소 운영부장 서리=김강수

△실험동장 기사장=김봉우

△전자계산소 개발계장 서리=안상호 (이상 94.12.1일자)

민병천총장, 황병수 총동창회장, 송석구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갑주 경주캠퍼스 부총장 및 교직원, 재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신학풍운동본부 현판식에서 총장은 "최근 발생한 반사회적 반윤리적 사회현상은 대학교육의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생긴 산물"이라며 "교수와 학생간에 자비와 존중이 넘치는 대학을 만드는 데 불교

신학풍운동본부 발족해

"인성교육 앞장설것"

인성교육강화와 문화풍토조성을 위한 '신학풍 운동' 전개를 위한 '신학풍운동본부(본부장=송석구·부총장)결성식 및 현판식이 지난 11월 28일 본관 앞에서 있었다.

민병천총장, 황병수 총동창회장, 송석구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갑주 경주캠퍼스 부총장 및 교직원, 재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신학풍운동본부 현판식에서 총장은 "최근 발생한 반사회적 반윤리적 사회현상은 대학교육의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생긴 산물"이라며 "교수와 학생간에 자비와 존중이 넘치는 대학을 만드는 데 불교

종합대학인 본교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원기사 3면)

서북대학 교류협정

8월로 연기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본교 민병천총장은 교류협정체결을 위해 중국서북대학을 방문했다.

그러나 화교 방문, 서북대학 총장과 국제교류위원장과 회의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교류협정체결은 올 8월로 미루어졌다.

한편 본교 자체결연대학인 대정대학에 새로 취임한 이사장 오다수 산이 양교의 보다 나은 관계개선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본교를 방문했다.

교수동행

▲김홍범(화학)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8월 16일까지 미국 조지아에서 자비해외연수.

쌍용의 기술로 만들고, 쌍용의 이름으로 세계와 겨룹니다.

세계는 지금, 사상과 야망의 대립시대를 지나 오로지 경제논리만이 지배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쌍용은 그 무한 경쟁의 국제시장에서 쌍용의 기술과 쌍용의 이름으로 세계 끝까지 기업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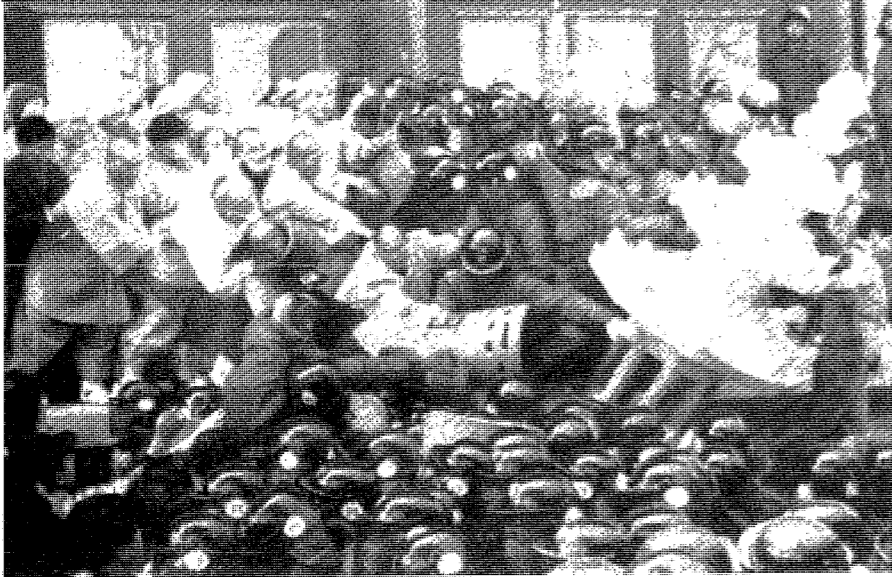
쌍용은 이미 정밀기계산업인 디젤엔진부문, 중합기계산업인 자동차부문, 거대한 장치산업인 시멘트부문에서 세계적 표준화 규격인 ISO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페라이트 마그네트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쌍용은 품질이 곧 국제경쟁력이라는 일념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쌍용이 추구하는 백년만용, 백년도전의 정신을 세계의 고객과 함께 나누는 걸음을 쌍용은 믿고 있습니다.

Made by Ssangyong - 그것은 이제 품질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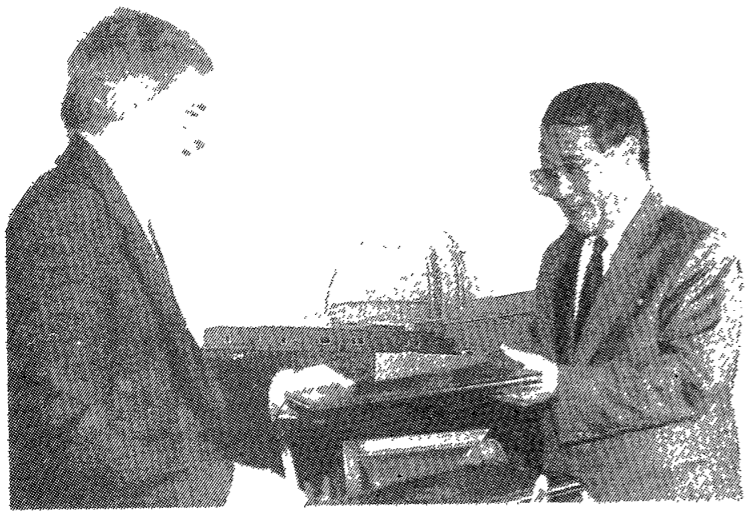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1994



◇조계사 사태... 조계종 총무원장 삼선선출감행으로 촉발된 3월 29일 조계사 폭력 사태는 4월13일 새벽 서의현 총무원장이 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장기 집권체제와 함께 막을 내렸다. 그이후 월주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했으나 앞으로의 불교개혁은 미지수.



◇총장 선출... 8월19일 이사장의 총장 직선제 관련발언으로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관심이 고조된 고 있는 가운데 1994년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학내 3주체에 의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일정은 교수회 단독으로 오는 15일로 확정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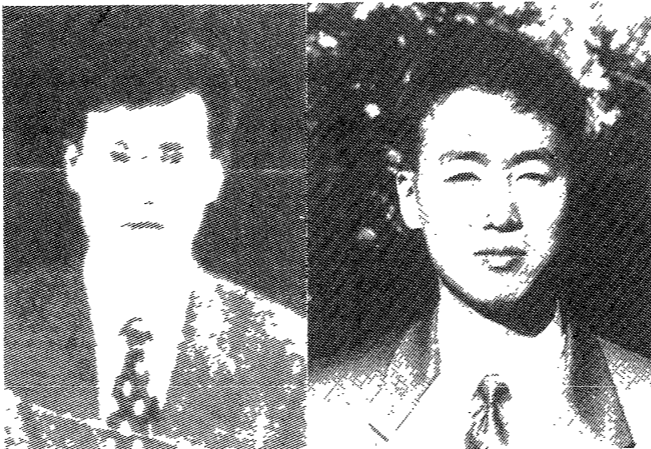
◇북미 핵협상 타결... 엄청난 뒤흔치라 김일성의 카드작전성공. 쌍방 간의 손익으로 얽힌 타결이었지만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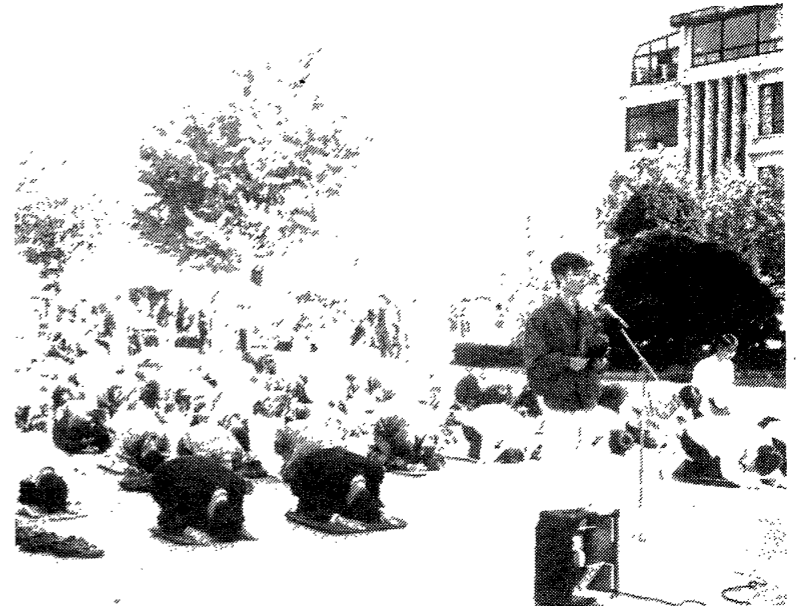
◇박홍총장발언... 7월 박홍총장의 주 사파관련 발언이후 조성된 신공안정국 분위기에 학원탄압이 한층 강하게 자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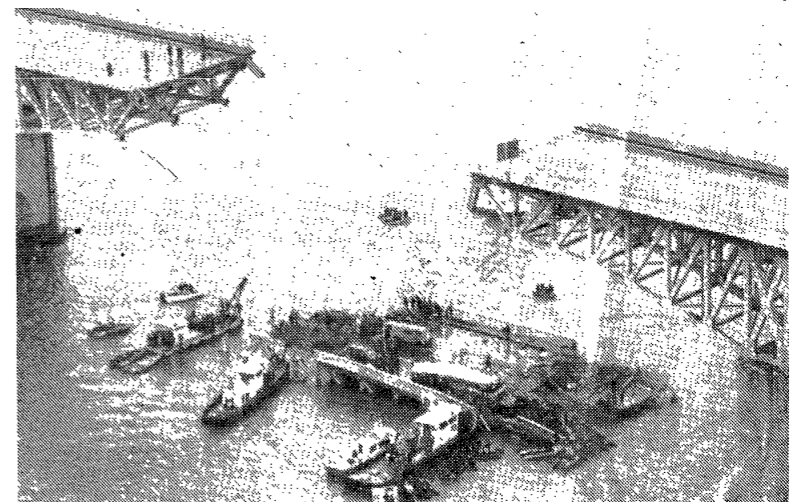
◇WTO국회비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국회비준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12월15일 국회는 WTO국회비준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세계 무역기구발족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총학생회장 사퇴... 서울, 경주의 연이은 총학생회장 사퇴는 학생 회사업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이는 학우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감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국문과 사태... 10월31일 교수폭행사건과 관련 2명의 제적, 5명의 무기정학과 학생처장, 문과대 학장의 사퇴를 초래한 국문과 사태는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언론의 확대, 과장 보도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성수대교 붕괴... 10월22일 한국사회에 민연돼 있는 총제적부정 부패, 무산인일 주위가 빛은 최악의 인재인 성수대교 붕괴 이후 총주호 유럽 선 화재, 가스폭발등 잇따르는 대형사고는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김일성 사망... 7월 8일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은 남북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북미 3단계 회담 무기 연기, 남북정상회담 전망 불투명등 대외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12.12기소 유예... 검찰이 '12.12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을 균형법상의 반란으로 인정하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10월29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기소권의 남용이란 비난과 함께 학계의 논쟁, 국회공전, 야당과 재야의 기소 촉구투쟁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동국내 산재된 문제 해결 의지 '실종'

총학생회장 사퇴·국문과 사태등으로 실추된 동국-민주총장선출로 극복해야

▲지난 1년동안 동학의 곳곳을 뛰다니면서 동국인의 손과 귀가 되어주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해였습니다.

우선 학내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등록금협상과정에서 총학생회와 총운위의 마찰, 그리고 학교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처음 학생회사업이라 할수있는 등·투 결과물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이어 학부위원장 선거, 총학생회선거등으로 학생자치기구 정립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인 학우들을 바탕으로한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졸출된 윤선 발전이후 총학생회장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학생회는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2학기에 접어들어 총장직선제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했지만 성과없이 파문만이 인체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투쟁과 올바른 학생회의 모습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학외, 특히 사회전반에서도 연초 WTO 비준, 쌀시장개방비준 등의 김경권의 무분별한 시장개방용직에 대한 민민운 진영 및 여러단체의 운동이 활발 하면서 반김경권집권의 목소리가 커져 갔었습니다.

그러나 박총총장으로 대표되는 공안과 동이후 사회적으로 민·민·운 진영이 많은 타격을 받아 위축되었습니다.

자리에 와서는 김대통령이 아뢰회를 다니는 이후부터 추진해온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까지 부르짖으며 경쟁력 강화만을 지속적인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시점에서 우리는 역시 공안태풍을 중심이로한 전후상황을 비추 사회전반에 걸친 인식과 분위기 및 문화적 영향에 주목해야 하였습니다.

이 지리는 율해동안 학내의 전반에 걸친 중요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학생회 투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등록금 투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금투쟁은 학교·학생 대표가 몇명씩 모여 협상을 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전년도에 이뤄졌던 합의안을 이뤄내지라는 식으로 진행되어 온 듯한 협상의 자리마저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 될수 있는 것은 협상 시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먼저 시작하여 다음으로 경주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형태였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서울·경주 함께 시작하여 준비과정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올해 총학생회가 협상능력이나 대응력을 담보해내지 못한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경주캠퍼스 경우도 총장과 총운위가 한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등록금협상을 시작



했습니다. 총학생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1%등록금납부'도 이뤄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불만에 의해 '전체대표자회의'가 한차례 열렸으나 그것마저도 상향하달식의 틀보이상의 형태는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등·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구성체들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한채 무리한 진행으로 서둘러 끝내버린점이 지적되어야 할것입니다.

동국중흥 한마당 유명무실

▲협상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중흥한마당이나 동국발전위원회건설이 모두 무산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있어야 합니다.

동국발전위원회는 애초부터 구성체제가 불가능한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체제가 이사장, 총장, 총동창회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되어 하부단위로 학원개혁위원회를 두는 형태인데 이 조직체제로 실질적인 사업을 발취한다는건 역부족이었습니다.

동국중흥한마당은 이름자체에서 처음 논란이 되었습니다. 동국중흥한마당으로 할것이나, 동국중흥한마당으로 할것이나, 여기서 학생회 본연의 소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동국중흥한마당의 경우 처음에는 지속적인 논의의 자리를 가지며 준비를 계속해왔습니다. 학기초 학부위, 총학생회 선거등의 자치단체장 선거로 유야무야되다가 총학생회장 사퇴이후 그림이 급격히 약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장충체육관을 3번이나 빌렸다가 취소한 못지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면 그것을 추진하면서 받쳐줘야할 조직인 학생회가 뒷받침안고 학교당국의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무산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더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초부터 시작된 총운위와 총학의 마찰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채 진행되

었고. 당장 총학집행부가 2명밖에 없었던 상황이 요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위, 공관위로 귀결

▲학기초의 제26대 총학생회가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학부위장 직선제등의 이유로 학부위, 총선거등의 실시로 인해 총학의 공식적인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타지연되고 거의 사업이 없다시피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학부위장 직선제 공약을 내놔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측의 선거의 의지는 거의 엿볼수 없는채 총대의원회의 독자적인 선거강행이었습니다.

학생회단위에서만 거론된 학부위장을 상대로 어느정도 도매심이 소송을 건사건도 2학기 선거기간에 접어들면서 유아무아되어 학부위의 투명성이 완벽하게 제기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학부위문제가 합리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는건 학생회만의 수익사업이 무리가 없다는게 드러나면서 서울캠퍼스의 경우 공관관리위원회가 건설되어 이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공관위의 최상위조직인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미비점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체계가 어느정도 잡혀왔다는 점에서 좋은평가가 내려질것입니다.

총회장 사퇴이후 중심 잡아야

▲다음은 서울·경주 양쪽 모두 불명예로 남을 총학생회 사퇴에 대한 논의와 그 이후 학생회 조직의 외해를 중심으로한 토론이 있어야겠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사퇴가 이뤄지기전 총학내부 본연로 집행부가 떨어져 나가고 총학생회장이 고립된 상황속에서 발견된 졸출된 윤선문제 총학생회장 사퇴, 이후 학생대표자회의의 까지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학생회의 위상을 단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수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론에 누가 제보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건으로 초래한 결과는 학교 명예손상측면도 있지만 학우들의 힐결여 분위기 조성도 큰 파급효과였던 것입니다. 그이후 신학풍운동을 제기하며 마무리 지으려했는데 이견 학교의 즉흥적인 발표상으로 대처방안으로는 미숙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신학풍운동을 이라하더라도 기획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타당한점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총장선거를 대비한 시도로써 책임자의 총장선거출마 포기를 끌고 한동안 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흐지부지하게 된것입니다.

민주적 총장 선출 왜야

▲이후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투쟁인데 올바른 방향과 지난투쟁의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투쟁에 대한 평가는 학생회자치기구의 의견통일이 안된상태로 진행돼 학생들의 투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투쟁은 노조의 방식에 있어서의 민주적총장선출을 위한 제안이 전부였는데 우선은 직선제를 지켜내야한다는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직선제를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 내용에서 교수의 단독선거를 주장하여 노조나 학생대책위에서 주장한 학생이나 직원의 참여요구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측보다 투쟁을 해나갈 만한 힘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27대 총학생회가 자주적총장 선출을 위한 사업을 어느정도 받아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이 될것입니다. 거의 1년에 걸쳐 투쟁해온 사안이었지만 승리적 성과로 남는건 직선제를 사수했다는 점이고 얻은것도 잃은 것도 없는 투쟁이었다라는 표현이 냉철한 판단인것 같습니다.

▲학생회 침체기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공안태풍으로 인한 신공안정국이 전국을 뒤덮고 있던 해였습니다.

성수대교붕괴, 공직자비리등 정부불신의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지존파등의 패용적 사건들이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조계종사태, 벌판이라 일컬어지던 불교단암의 움직임이 본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를 마무리지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사건들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해였지만 계속되는 침체의 늪에서 이젠 해어나 새로운 각오로 올해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한해동안 모두를 수고 하셨습니다. (기록:정리=양수정기자)

참석자

서울캠퍼스

이석중 편집장

이유리 취재 1차장

박주영 취재 2차장

양수정 사회 차장

김소영 문화 차장

박대용 기자

백도나 기자

이수훈 기자

김은혜 기자

서승현 기자

문수정 기자

경주 캠퍼스

이재환 편집부장

김태성 문화부장

이민영 취재 3차장

이현주 기자

박묘선 기자

신형섭 기자

송선영 기자

장소:본사회의실

일시:1994년 12월 20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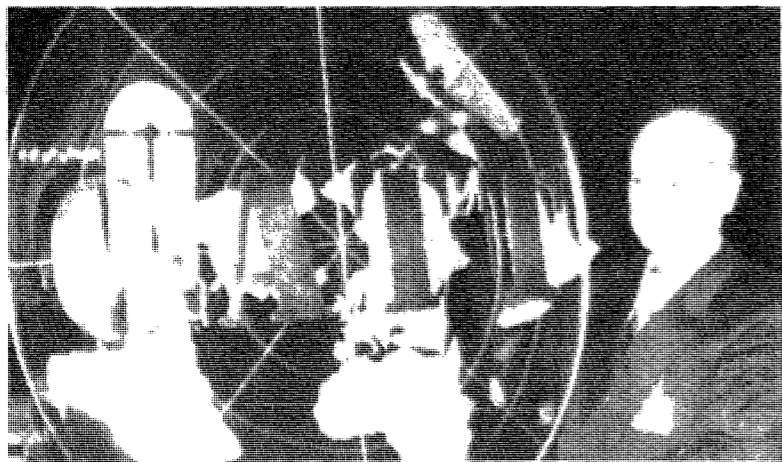
즐거운 맛의 세계를 여행하세요.

세계인이 즐겨찾는 해밀리 레스토랑 - 코코스에서 156가지 수준높은 메뉴를 골고루 즐겨보세요.

COCO'S

●COCO'S는 1년내내 쉬는날이 없습니다. ●영업시간 11:00 AM~24:00 PM ●피자, 샌드위치, 치킨바스켓, 프렌차후라이는 포장판매도 가능합니다.

WTO출범, GATT와 달라진점



WTO, 판결·집행권 겸비한 강력 기구 미국 독소조항등 강대국 무역 횡포 여전

세계무역기구(WTO)가 95년 새해와 함께 출항의 돛을 올렸다. 지난해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 모인 세계 1백25개국 대표들은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총결과 함께 WTO의 출범을 알리는 최종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종전 이후 50여년 간 세계 경제 질서를 이끌어온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UR협상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마침내 세계는 '무한전쟁의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지난 한해 자국의 국외비준 문제로 산고 겪어오던 WTO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등 주요 산과역은 물론 나라이들이 잇달아 비준을 마치며 95년 출항을 가능케 했다. WTO가 종전의 GATT체제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가진 강력한 집행체제라는 것이다. GATT체제가 불공정 무역질서에 대해 강제적 규제수단을 갖지 못한 국제협정차원에 불과했다면 WTO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국제 통상 경찰'로 불리워질 전망이다. 세계 모든 회원국에 대해 공동 규범의 규범을 적용하며 이에따라 WTO의 결정이나 판결은 지금까지 각 개별국들이 임의로 남발하던 무역보복이나 무역장벽 조치들보다 상위의 권한을 지니게 된 것이다. WTO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기구(DSB)를 설치 불이행국에 주선, 화해, 중재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강대국들의 무역횡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12월 2일 상원을 통해 UR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주목할만한 독소 조항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제1조에 명기된 국내법 우선 원칙을 보면 세계무역 기구가 내리는 결정이 미국에 이미 존재하는 실정법과 다를 경우 미국의 법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하나의 WTO 탈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WTO가 미 국내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미국내 심사소위원회가 5년동안 세 번 이상 판시하면 바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다는 것으로 미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게 WTO를 운영해야 한다는 알안

리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의 슈퍼 301조와 비슷한 무역조치를 UR협정 이행법안의 하나로 각료이사회에 제출했다. WTO는 또 공산품의 관세장벽철폐에 주력했던 GATT와는 달리 상품교역외에 금융등 서비스분야의 지적재산권등 무역 상품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소프트웨어 등 각종 지적적 이해가 달려 있는 상품과 섬유분야에 까지 거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수입허가절차·해의무지규정등 무역관련규범을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WTO가 출범하게 돼 우리나라는 금융·유통·건설·교육·관광등 서비스시장의 문호를 활짝 열어야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원칙등을 대부분 폐지해야한다. 수입허가절차·원산지규정등 수입 관련법규도 뜯어 고쳐야하며 정부 보조금 일색인 산업지원제도 역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여아의 침에한 데립으로 비준을 미뤄오던 국회는 극적인 타협으로 지난 12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WTO 협정 비준동의안과 전문 14개 조항의 WTO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이 주장하던 협정보다 국내법 우선 조항은 표결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후속협상 대책수립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금융·세제 지원 등 각종 국내산업 지원제도는 내년 초까지 세계무역기구보조금협정에 부합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종합무역보고서에 따르면 WTO출범의 영향으로 2005년까지 전세계의 실질 총생산의 1%씩 늘어나고, 교역량은 이때까지 12%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정세적으로 매년 2천1백20억~2천7백40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이중 7백80억달러는 개도국의 몫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중에 또 어느정도가 우리나라의 몫으로 떨어질지는 그야말로 미지수이다. (양수정 기자)

— 새 시대에 맞는 농지법 —

넓은 기틀로는 안된다

농지법, 관간섭 대폭 축소하여 민간활력 개발해야

지난 예산국회에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낱치기 국회였기에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못하고 제정되었다가 때문에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1949년 이래 오늘날까지 45년간이나 논란만을 거듭해 온 농지법이 제정된 것은 그만큼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정된 농지법은 개방화와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형평과 능률 등 동시에 추구해야 할 오늘의 한국 농촌·농업·농민의 현실에 비추어 불매·과연·당면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염려스럽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농지법 제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어 온 것은 농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큰 커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지는 매우 영세하게 소유되어 있어서, 농업 경영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앞으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영세한 농업 경영구조에서는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서둘러 농업경영 규모를 확대·개편해야하고, 이에 장애물이 되는 법과 제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농지에 관한 기본법(농지법)을 정비해야 한다

는 것이 농지법 입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농지법 제정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토지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건 토지 소유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줄으로써 공평성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근저에 사는 사람들은 지가의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농촌에 사는 사람의 토지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농촌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농지법은 여차와 농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농지 매매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법이 사회적 공평대를 얻어내려면 그 전제로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제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강화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로 형평성을 지키면서 농지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도가 지나쳐서 관의 간섭이 강화되면 오히려, 형평성도 능률도 함께반에 다 농치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하면서 농민 이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모두 관이 적발하여 강제 매수한다는 식으로 농지법이 짜여져 있는데, 민은 민대로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고 불법행위 될 것이고, 관은 권한을 휘

둘러 불법적인 농지 소유를 적발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관이 부패가 조성을 우려가 없지 않게 된다. 현재 농림수산부가 구상하여 공청회에 회부한 농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농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규제를 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앞으로 대폭 삭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농지법 제정에 있어서 첫번째 강조했던 부동산투기를 막는 법과 제도만 정비되고 그 실효를 거두게 되면, 농지를 누가 취득하던 그것을 경제 논리에 맡겨 두어도 상관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950년대나 60년대에는 농촌의 절대빈곤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였고, 넓은 기틀을 위한 제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강화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로 형평성을 지키면서 농지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도가 지나쳐서 관의 간섭이 강화되면 오히려, 형평성도 능률도 함께반에 다 농치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하면서 농민 이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모두 관이 적발하여 강제 매수한다는 식으로 농지법이 짜여져 있는데, 민은 민대로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고 불법행위 될 것이고, 관은 권한을 휘

그것을 어진 사람에게 중벌을 가한다는 내용의 농지법은 농촌의 실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만 철저하게 차단한다면, 자본가들에게 농지를 사라고 해도 병크 농지를 사려고 한 자본가는 그다지 흔치 않을 것이다. 이제 농업도, 공업에서 주식회사 제도가 발달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방대한 자본이 집중(集積)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 시킴으로써 대규모 경영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을 떠날 사람은 자유롭게 떠나고, 농지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구입하게 하면서, 관의 간섭을 대폭 철폐하고 여유 있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이나 농지법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농민에게 농지를 갖게 하는 것보다는 관의 횡포를 막는 일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농지법도 민간의 활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다듬고 고쳐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주중환 (농과대 농경과 교수 역임))

1994년 12월 16일 국회는 'WTO 가입을 위한 마차취취협정 비준 동의안'을 찬성 152표, 반대 58표로 통과시키고, 곧 이어 제3호 국내법 우선 조항이 삭제된 'UR이행특별법'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UR이행특별법으로 WTO 가입을 가능하게 미국 등 선진 강대국의 수입 개방압력으로부터 국민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되었다. 반면에 재협상, 민족분쟁간거래 등을 담고 있는 UR이행특별법의 제정으로 UR이 허용하는 범위인에서의 농업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근 2여년에 걸친 전농과 애국애농세력의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승리만을 거둔 셈이다. 전농은 지난 12월 UR협정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정부의 사태대국적이고 굴욕적인 UR협상에 맞서 'UR협상 반대, 재협상 실시'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여기에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197개 단체가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국민투표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국민적인 농업사수전선 구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과 민족의 주권이 걸린 UR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총리와 농수산 장관 경질,

◇농업 살리기 위한 전농 대비책

UR이행특별법으로 농업보호 가능

농업대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자

농축세 15조원 신설 등의 미봉적인 대처로만 일관해 왔다. 급기야는 '더 이상의 UR재협상은 불가하며 국제와 세계화에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위해서 UR협회비준은 불가피하다'라고 거짓선전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애농세력에 대한 탄압을 일삼았다. 힘든 농사일로 멍든 농심에 대못을 박는 삼인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농은 수차례에 걸친 농민대회, 농기계시위, 항의방문투쟁, 선전전 등의 끊임없는 UR투쟁을 통해 2차례의 UR국회비준을 물리쳤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서는 의정단들의 구속을 각오한 청와대 전격투쟁, 전국 동시다발 농기계시위를 전개하는 등 목숨을 건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더이상 한국 농업농민의 미래는 소망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이러한 투쟁에 힘입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UR이행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영무 새처럼 UR재협상 불가만을 외쳤던 정부는 스스로의 입장을 어기게 된 꼴이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UR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UR이행특별법에 근거하여 재협상을 통해서 UR협정본이 보장해 주는 권리를 되찾게 되었고, 긴급특별관계, 부과금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내부간거래, 수입농산물 관세, 국내 농업투자, 직전지불제 등 UR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농업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에서는 UR이행특별법이 국내법 우선조항이 삭제된 채 의결되었고, 동시에 WTO비준안이 통과되었다. UR이행특별법에서 제3호 국내법 우선 조항은 재협상과 남북내부간거래 등을 담고 있는 UR이행특별법의 핵심적 조항으로 농업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 우선조항이 삭제된 것은 WTO비준안인 관철시키고 UR이행특별법은 사문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음모를 여의없이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따라서 UR투쟁과 수입개방저지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UR이행특별법에 근거하여 UR협정본에 대해 내부의 재협상, 각종 수입제한조치, 민족내부간 거래, UR이 허용하는 농업보호대책 실현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이행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95년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을 통해서 UR협정본이 보장해 주는 권리를 되찾게 되었고, 긴급특별관계, 부과금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내부간거래, 수입농산물 관세, 국내 농업투자, 직전지불제 등 UR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농업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에서는 UR이행특별법이 국내법 우선조항이 삭제된 채 의결되었고, 동시에 WTO비준안이 통과되었다. UR이행특별법에서 제3호 국내법 우선 조항은 재협상과 남북내부간거래 등을 담고 있는 UR이행특별법의 핵심적 조항으로 농업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Advertisement for Metro Grand Opening. Text: '여자가 새롭게 부활한다', 'METRO', 'GRAND OPENING', '메트로미도파 12월10일'. Includes a list of features like '6F 신세계 강남의 거점 LOFT', '5F 유니크한 남성 패션 스포츠의류', '4F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UNi-SEX 멀티샵', '3F 김선 그레이드 업 / 열개수업', '2F 캐리어우의를 위한 인텔리전트 쇼핑', '1F 고급도 여성패션리뷰', 'B1 CD전문 피규어 스테이션'.

오늘을 사는 동국인 - 한국인 동문

꿈많은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작가



‘서울신문 신춘문에 단편소설부문 당선’ 소설집 ‘아버지와 아들’등을 발표한 저명한 중견작가 한승원씨의 아들인 한국인(국문91출) 동문이 며칠전 전해받은 기쁜, 그의 말로는 그저 덤덤한 소식이다.

“당선작이 ‘변태시대’예요. 일부러 작품제목은 한글로 썼죠. 국어 가전을 뒤져보면 ‘변태’란 말은 성적인 의미와 곤충에서 볼 수 있는 탈바꿈의 의미, 이 두가지 뜻이 있어요.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죠.”

“제가 문학을 시작한 건 많이 접해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니까요. 여동생도 작년에 소설로 등단했구요.”

“한동림이란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필명이예요. 본명이 ‘한국인’이라 예전부터 평범한 이름을 원했었죠. 동생들 이름도 재밌어요. 여동생은 ‘강’이고 막내는 재 이름의 ‘인’, 동생의 ‘강’자를 따서 ‘강인’이예요.”

“노자의 말씀중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빈공간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문학을 하는데는 세계관과 필력이 다 필요해요. 세계관이 앞서면 영성란 글이, 필력이 앞서면 공허한 글이 나오죠.”

“꿈이요? 저는 타인에게 제 꿈을 말하지 않아요. 꿈은 남에게 알려지면 그 순간부터 꿈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 버리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이고,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꿈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전자는 못 되더라도 후자는 되고 싶어요. 제 꿈은 이루기가 좋...”

“가끔은 다른 생각이... 하기가 지금 가는 길도 꿈과는 약간 다른 길이나. 지금은 작품활동만 하고 싶어요”

긴 만남의 시간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그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박대용 기자)

모니터가 바라본 동대신문

시선 일관성 유지에 노력 신속한 정보 전달에도 힘써야

첫째, 사회변의 간결한 구성과 명쾌한 내용이 계속 유지, 발전되기를 바란다. 좀더 깊이 있는 내용만 보충된다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다.

두번째 학술면의 내용이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과 학생이 아니면 당황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또, 한편 가득 채워져있는 개별만한 글자에 질려 읽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은 편집할때 충분히 고려되고 교정될수 있는 사항이다.

세번째, 요즘 학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반 학우에게서 쉽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수록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학우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대안을 끌어내는 것이 신문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이런점에서 좀더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을 계도해 나가는 동대신문을 기대해본다.

네번째, 대학신문이 기성언론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 하나가 시선의 일관성이다. 기획에 편승하지 않고 꾸미지 않은 순수함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대 전제적인 의미에서의 일관성을 동대신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순은 일이다. 동대신문이 그것에 상당히 충실했음은 무엇보다도 여지껏의 동대신문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으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시선과 그것들을 묶는 전체적 시선과의 개연성이다. 간혹 이것들이 작게라도 어긋나

는 일이 있다면 상당히 우순을 것이다. 그래서 감히 동대신문에 바란다. 시선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다섯번째는 신세대이니, X세대이니 하는 극적 불평의 단어들이나 난무하고 지독한 개인주의와 남을 놀려서라도 최고가 되라고 부추기는 아방적인 자본주의적 상품문화 사에서 점차 실종되어가는 가치관 의 문제는 비단, 대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가끔 동대신문을 읽다가 느낀것은 이러한 사회풍조와 아직은 남아있는 소위 대학문화라는 것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요구되는 배경지식의 충분한 습득이 필요하다. 신문의 역할은 정보의 전달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계몽성에 더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면에서 올바른 정립된 가치관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동대신문의 신년호 발간을 축하한다.

김현정
(공과대 산공과-본사모니터)

기자들의 노력 돋보여 독자에게 쉽게 읽히는 신문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또 한 해를 열면서 94년의 동대신문을 뒤 돌아 본다.

94년의 동대신문에 있어서 다른 해보다 더욱 뜻깊은 해였다. 체계가 잡힌 가로짜기의 편집-기획적인 변화를 시도한 7면의 경우보도면.

기획이 달라질 때마다 지면이 늘어난 때마다 기자들에게는 더 많은 일이 요구되어 졌고 그 결과가 7면 경우보도면이다. 지면 부족으로 인해 정주기가 많이 실리지 못한 아쉬움을 비로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어실프게 발을 딛었지만 점차 정착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만큼 기자들의 노력과 성의를 엿볼 수 있었다.

영화 패러독스 역시 새로운 모습

수 없다. 가끔 동대신문을 읽다가 느낀것은 이러한 사회풍조와 아직은 남아있는 소위 대학문화라는 것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요구되는 배경지식의 충분한 습득이 필요하다. 신문의 역할은 정보의 전달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계몽성에 더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면에서 올바른 정립된 가치관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동대신문의 신년호 발간을 축하한다.

김현정
(공과대 산공과-본사모니터)

지만 신문은 기자들의 눈을 통한 보도와 비판이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오자에도 신경을 쓰길 바란다.

95년에도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며 무수한 변화를 시도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동대신문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뛰는 기자들을 위해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2면 열린 글터에 독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란다.

김현정
(불교문화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대학언론의 순수성 간직 적극성 갖춘 기사 보강 필요

지난 1994년은 동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던 해였다.

총학생회장 사퇴에 따라 동양 학생운동의 맥이 끊겨 버렸고 국문과 사건으로 인해 동국대학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기도 했으며 박종철의 주사파 발언으로 전국대학의 학생운동을 침체시키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크나큰 사건들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동대신문의 위치와 역할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 우선 동대신문은 기성언론과 달리 대학언론으로서의 순수성을 간직한 채 사건유발적 즉 기성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을 넘어섰는데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기성언론과 달리 대학생이라면 지나야 할 순수성 이야말로 우리들이 어디에서도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동양내의 언론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학우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많은 학우들이 동대신문을 보면 읽을 거리가 너무 한정적이라고

나아가는 동대신문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뛰는 기자들을 위해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2면 열린 글터에 독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란다.

김현정
(불교문화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대학언론의 순수성 간직 적극성 갖춘 기사 보강 필요

지난 1994년은 동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던 해였다.

총학생회장 사퇴에 따라 동양 학생운동의 맥이 끊겨 버렸고 국문과 사건으로 인해 동국대학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기도 했으며 박종철의 주사파 발언으로 전국대학의 학생운동을 침체시키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크나큰 사건들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동대신문의 위치와 역할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 우선 동대신문은 기성언론과 달리 대학언론으로서의 순수성을 간직한 채 사건유발적 즉 기성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을 넘어섰는데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기성언론과 달리 대학생이라면 지나야 할 순수성 이야말로 우리들이 어디에서도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동양내의 언론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학우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많은 학우들이 동대신문을 보면 읽을 거리가 너무 한정적이라고

나아가는 동대신문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뛰는 기자들을 위해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2면 열린 글터에 독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란다.

김현정
(불교문화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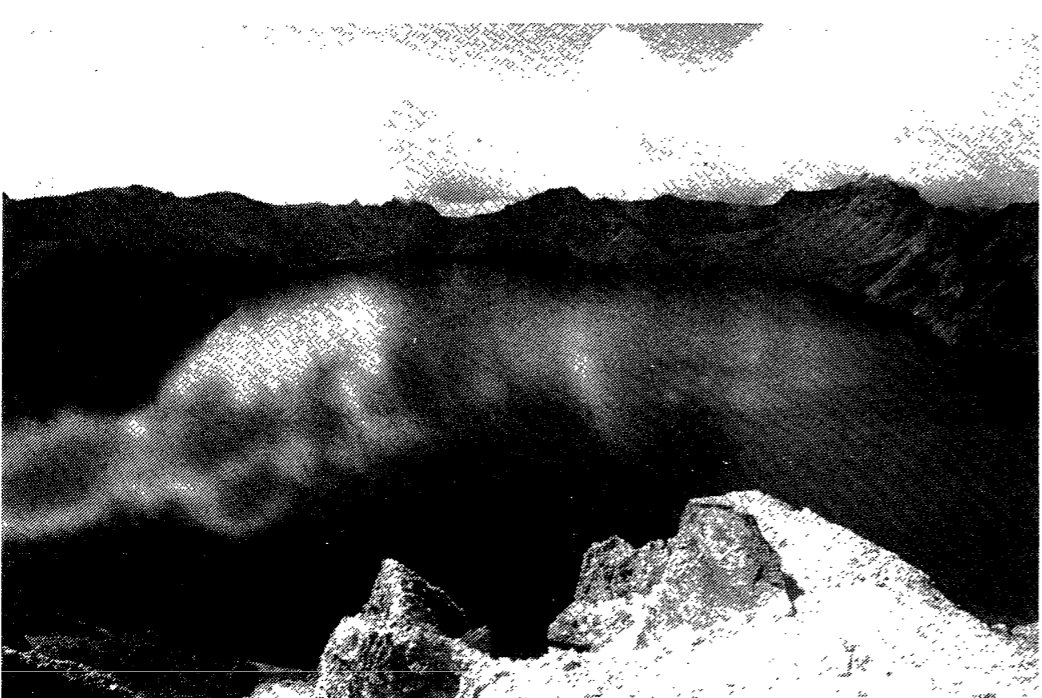
나아가는 동대신문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뛰는 기자들을 위해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2면 열린 글터에 독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란다.

김현정
(불교문화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시대 사진

천지에서 새해를

이석종
(본사 편집장)



동/문/칼/럼

삶의 발걸음속에서 '광견병'은 같이 살아가는 여정

작년 1월 좋은 기회가 생겨 국내 내팔 여행을 한 적이 있다. 목심장게 갈 곳을 많이 정하고 바쁘게 그지 없이 돌아 다녔다. 북베리로 부터 출발한 여정을 북으로 북으로 옮겨 돌비니로 들어가 기 직전, 인도 일정의 마지막인 쿠쉬나가르로 향했다. 부처님 열반지. 하루정도 머물고자 했던 곳. 자욱한 흙 먼지를 남기고 떠나간 버스에서 내려 '열반당'으로 걸어가는 데 서너마리의 개짓는 소리가 들렸다. 행선지 표지판이 없었더라면 부처님 열반지라고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시골 마을. 7년전 이스라엘 여행때 보았던 예수님 유적지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숙연하고 성스럽게 잘 가꾸어져 있었지만 왜 이렇게

.....

.....

.....

.....

.....

.....



.....

.....

.....

.....

.....

.....

.....

.....

.....

.....

.....

.....

.....

.....

.....

.....

.....

.....

목 먹 골

신년인사

■1994년! 모순된 구조속에서 한 해를 보내며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동양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내년을 계획하십니까? 치욕적인 역사의 장을 잊고, 하나되는 조국, 동양발전을 위한 모습속에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당차게 95년을 맞이합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문/광/장

동/문/광/장

.....

.....

.....

.....

.....

.....

.....

.....

.....

.....

.....

.....

온 방 골

신년인사

.....

.....

.....

.....

.....

.....

.....

.....

.....

.....

.....

.....

온 방 골

신년인사

.....

.....

.....

.....

.....

.....

.....

.....

.....

.....

.....

.....

온 방 골

신년인사

.....

.....

.....

.....

.....

.....

.....

.....

.....

.....

.....

.....

온 방 골

신년인사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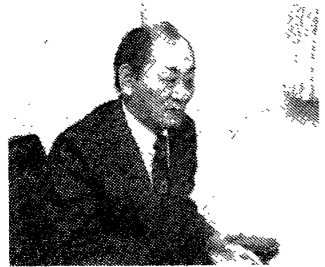
동국문학의 현주소 찾기

그동안 집약된 문학적 성과 '동국문학이 곧 한국문학'이라는 명제 가능 물상화시대 인간방어로서의 문학 역할 대두

사회자: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학교가 개교 90주년을 바라보며 국문학과는 창설된지 50주년이 됩니다. 굳이 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동국문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때 '동국문학은 한국문학이다'라는 다소 과장된 명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국문학이 곧 한국문학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늘날 좀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럴만한 정당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일지라도 가령 서울대학은 식민지시대에 수용하는 엘리트층을 양성하기위해 세워졌던데, 연희전문은 상과, 고대경우는 법학과를 특성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 이에반해 동국대학 해방전문은 문



김흥우 교수

학을 중심으로한 국학특이 단연 대표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대학이 몇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형편이 매우 달라서 1백30여개의 대학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국문학도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국문학이 한국문학이었다는 오늘날에는 쇠퇴해간다는 관측은 매우 부당합니다. 시대의 변화에는 눈을 감고 오직 과거에만 매몰된 양상입니다.

우리가 동국문학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변화하는 시대와 더불어 생각 해볼때 과거에 동국문학을 보는 관점이 본다면 전혀 정당한 이해도 분석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는 각분야의 여러전문인사들을 모시고 분야별로 동국문학의 전반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먼저 동국문학전통에 대해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배출한 시인만도 3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대시 초창기만해도 만해 한용운선생을 제외하면 꼽을 수 있었는데 만해는

불교적 세계관을 시에 형상화했습니다. 한편 박한영선생을 말할수 있는데 그분은 한시를 가지고 선시를 쓴 분이라는 하지만 나름대로 문학적 자신의 하나로 오늘날 평가해 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후로 내려오면 미당 서정주, 같은시기 조지훈, 신석경, 김달진, 함형수선생을 거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해방전 세대로 분류한다면 해방 이후에는 이형기, 신경림, 그루를 박재천, 문정화, 김조혜 등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방전 세대의 대체적인 공통점이라면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당의 경우는 구경적인 삶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하는가라는 문제를 파고들다 신라인의 불교적 삶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지훈, 이종준, 이형기선생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까? 동국문학이운데 시에서도 개성이나 세계관이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예, 개성문제가 나왔는데 과연 대학단위 문학이라는게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의미가 있다면 가령 개인에게 개성이 존재하듯이 집단이 형성하는 문학속에도 모종의 개성이나 특성이 존재할때만 '동국문학'이라는 특별한 영역의 문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다시말해 '동국문학'이란 객관적으로는 동국출신의 문학인이 이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관적으로는 아까 홍신선선생이 시대정신과 다양성에 대해 말씀했듯이 불교정신등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분위기를 타나난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까?



이상문 소설가

정재봉: 저는 한편으로 동국문학이 학생들을 주눅들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애가를 하자면 오늘 학교를 찾아 오면서 골목길은 잘 찾아왔으나 갑자기 큰길로 나오면서 어디로 가

아할지 당황했습니다. 문학도 그와 마찬가지로 골목길이 잘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문학이 시인의 산실처럼 되다보니 소설, 희곡등 각기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큰길로 달려가려하지 않거나 싶습니다. 큰길은 큰길대로 있으되 작은길도 발달되어야 합니다. 문득 '골목길'이 그리다란 구절이 떠오릅니다.



정재봉 동화작가

사회자: 동국문학에 있어 장르상의 균형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정재봉작가께서 개척한 동화라는 분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할때도 유익성을 갖는것으로 동국문학을 넘어 한국문학의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분야를 얘기하자면 소설은 시에비해 부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70년대 이후 위치를 강화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상문: 소설분야는 시보다 양적인 면에서는 많지 않으나 질적으로 아무지다는 점에서 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동국문학은 학교단위지만 나름대로 색깔을 지닙니다. '오발탄' '태백산맥' 등을 볼때도 모태가 같은 특색을 지니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동국출신이기 때문만 아니라 같은 색깔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국문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색깔을 말하면서 전통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깊은 의식속에 갖고있는 전통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와 가치를 지닌 민족주의적 문화는 전통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때 동국문학은 전통문화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활동의 연령층을 보더라도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런 희곡특은 어떻습니까? 김흥우: '오발탄'을 감독한 유현목

교수를 처음 꼽을 수 있었으나 미국 유학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근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연극계는 서양적인 것의 범람으로 70-80년대 오면서 우리것찾기에 대한 관심이 모여지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한 연극들이 일기시작합니다. 최근 이만희의 극도한 그런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한때 불교적인 것이 성공한다는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불교정신이 깃든 동국 출신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미당선생께서 얼마전 "불교정신에 의지해서 살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색깔인 불교적 세계관을 지녔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음을 부인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홍기삼: 평론분야를 말한다면 양주동, 조연현, 정태용, 등 동국을 거쳐간 사람이 정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학의 전통을 수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문학성, 언어성을 소중히 여기는 비평을 보여주며 문학적 중용을 가치를 두려 했습니다.

사회자: 정보화시대를 맞아 물상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물질적기치에 밀려 정신적기치까지도 컴퓨터에 입력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때 문헌하는 집안이 해야할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홍신선: 시에서만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이른바 정신주의시라는 것이 90년대 들어와 갑자기 화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정신의 해방을 내세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쪽의 작업을 젊은 시인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정재봉: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피속에는 불교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국에 와서는 반항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종하기만하면 정적이 혁명적으로 이기 합치지 않았습니까? 반항하면 이단시였던 통토가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상문, 김창범, 이명주등이 재학시에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동인지지를 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홍신선: 불교의 사상체계나 세계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정립된 이론과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적인 틀은 우리저변에 깔려있는 거고 거기에 입설당한다면 개인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예술은 실

총론 - 좌담

사회자: 홍기삼(국문학)교수
좌담자: 홍신선 시인
이상문 소설가
김흥우(연극영화)교수
정재봉 동화작가

일시: 1994년 12월 29일 11시
장소: 본사 주간실

아를일 만한 기성문인이 10여명이 합쳐했습니다. 이는 동국문학이 활성화될만한 촉매가 될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국문학의 발전전망과 과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김흥우: 본교에 문학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자료습득이나 한편으로 동문과의 연계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또 학부에 문예창작과를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문학을 전문화하는 과정이 생겼으면 합니다.

정재봉: 전체를 찾기는 힘들지만 학교에서 전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문학의 정체라고 얘기하지만 금년부터는 특기자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적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타학과와의 연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흥우: 제가 1년간 희곡론을 강의하면서 느낀점은 국문학에 글재주 있는 학생이 많지만 교과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외국어의 경우처럼 전문화되어 자신이 택한 분야의 기능강화된 통달한 면을 중점을 둡니다.

홍신선: 예전에는 정규수업외에도 씨름이나 화회등 글쓰는 동아리끼리 모여 술마시면서 문학에 대한 토론을 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는등 문화공부에 대한 상층적 분위기가 있으나 요즘은 침체된 듯 합니다.

문학에는 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얘기같으나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름대로 문화공부에 열의를 두다보면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집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도 여겨집니다.

사회자: 그럼 결론삼아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까. 동국문학이 90년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팎이 힘을 모아 거머쥘수 있는 후배에게 자극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동문역할에 대해 얘기한것은 고맙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매우 한국적이지요. 짧은 세대는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는다면 개인적으로나 동국문학에도 발전적인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 지을가 합니다. 예전에 어느 세미나자리에서 김유정의 토속성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지를 말한바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역에서도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것으로 승부를 따를때는 바로 동국문학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정신과 대립되는 동양정신, 구체적으로 한로 국정신이 동국문학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세계화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본교에 문화예술대학원이 신설되고 문예창작과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동국문학의 가족으로 발

합의 연속이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름대로 재창조를 통해 자기예술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문: 정재봉씨는 동국문학 환경의 문제점을 그림을 보듯 거리를 두고 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기 개성이 뚜렷하지 못하면 휩쓸린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불교도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덧 붙여 말하고 싶었던것은 소설, 평론, 아동문학의 줄기가 강하게 이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현재는 동국문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문학의 위기입니다. 대학에서 본다면 이럴때 인문주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중 문학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풍토는 문학작품읽기를 매우 소홀히 합니다. 대학의 커리큘럼 자체도 작가보다는 이론가를 양성하는데 치우쳐있습니다. 이는 대학 특성상 학자양성이란 것으로 볼때는 무리가 없을지 모르나 동국문학의 논리로 본다면 어이없습니다.

또한가지를 말하자면 요즘 세대들은 대화를 하더라도 소위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채팅방식에 몰두합니다. 아까도 물상화를 우려했습니

다만 인간관계가 대면접촉이 아닌 정보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이후 우리문단에는 혼성모방(페스티시)이라는 창작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전통문학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문학에 대한 보수적, 진보적 견해차가 아니라 문학이냐 문학이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젊은세대의 물상화되어가는 삶, 또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인간관계의 단절, 체면과결은 과잉 정보의존상태,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대학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우려를 넣고 있습니다.

한편 비디오산업이 발달하면 영화는 말한다는 예측과 달리 영화또한 그 영향으로 번창했습니다. 미찬

다만 인간관계가 대면접촉이 아닌 정보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이후 우리문단에는 혼성모방(페스티시)이라는 창작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전통문학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문학에 대한 보수적, 진보적 견해차가 아니라 문학이냐 문학이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젊은세대의 물상화되어가는 삶, 또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인간관계의 단절, 체면과결은 과잉 정보의존상태,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대학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우려를 넣고 있습니다.

한편 비디오산업이 발달하면 영화는 말한다는 예측과 달리 영화또한 그 영향으로 번창했습니다. 미찬

아를일 만한 기성문인이 10여명이 합쳐했습니다. 이는 동국문학이 활성화될만한 촉매가 될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국문학의 발전전망과 과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김흥우: 본교에 문학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자료습득이나 한편으로 동문과의 연계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또 학부에 문예창작과를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문학을 전문화하는 과정이 생겼으면 합니다.

정재봉: 전체를 찾기는 힘들지만 학교에서 전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문학의 정체라고 얘기하지만 금년부터는 특기자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적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타학과와의 연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흥우: 제가 1년간 희곡론을 강의하면서 느낀점은 국문학에 글재주 있는 학생이 많지만 교과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외국어의 경우처럼 전문화되어 자신이 택한 분야의 기능강화된 통달한 면을 중점을 둡니다.

홍신선: 예전에는 정규수업외에도 씨름이나 화회등 글쓰는 동아리끼리 모여 술마시면서 문학에 대한 토론을 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는등 문화공부에 대한 상층적 분위기가 있으나 요즘은 침체된 듯 합니다.

문학에는 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얘기같으나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름대로 문화공부에 열의를 두다보면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집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도 여겨집니다.

사회자: 그럼 결론삼아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까. 동국문학이 90년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팎이 힘을 모아 거머쥘수 있는 후배에게 자극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동문역할에 대해 얘기한것은 고맙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매우 한국적이지요. 짧은 세대는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는다면 개인적으로나 동국문학에도 발전적인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 지을가 합니다. 예전에 어느 세미나자리에서 김유정의 토속성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지를 말한바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역에서도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것으로 승부를 따를때는 바로 동국문학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정신과 대립되는 동양정신, 구체적으로 한로 국정신이 동국문학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세계화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본교에 문화예술대학원이 신설되고 문예창작과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동국문학의 가족으로 발



그이를 사로잡은 내 눈, SPC 때문이에요!

하루 한번 세척으로 단백질제거를 동시에-SPC액

'안경을 쓸까? 렌즈를 닦까?'
이걸 닦다가 저걸 닦다가...
난 결국 전날 밤에 SPC액으로 깨끗이 닦아놓은 콘택트렌즈를 끼고 나왔다.
'이 남자 오늘 왜 이래?'
평소에 그 멋진 유머는 다 어디가고 내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5분, 10분...
참다못한 내가 먼저 말을 꺼내려는데,
"눈이 참 예쁘네! 참 깨끗하다."
그의 부드러운 바라듯 음성-
내 얼굴은 뼈알갈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바로, 난 하루 한번 세척으로 단백질까지 제거해주는 SPC액을 쓴단말야.'



올가을 렌즈관리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SPC액!

깨끗해요! SPC액은 3가지 미이온성 계면활성물질이 상호 보완작용을 함으로써 하루 한번 세척으로 단백질까지 깨끗이 없애줍니다.
안전해요! 세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편안해요! 행구기 쉬운 수용성이라 취침전 사용하면 렌즈와안감이 부드러워 하루종일 눈이 편안합니다.



● 세척 및 단백질제거액 SPC ● 1주1회 단백질제거제 사린스닝
● 알코올 세척액 중외크리너 ● 보존소독액 뷰렌스
● 콘택트렌즈 전용 용액 뷰티론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수입원제품 ● 권장소비자가격: ₩ 5,500(2개입분)

SPC회원만의 특별한 혜택

SPC 액을 구입 후 라벨을 오려서 보내주세요. 사는대로 회원 가입이 되어 유머는 콘택트렌즈 관리요령 책자, 보충이 있습니다.
● 보내실 곳 (55-757) 남서울대학교 사서함 96호 (주)중외제약 본사 4F실

본택트렌즈 관리상담실 운영 중외제약에서는 렌즈관리 부주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코저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신 사항은 해당지점-사업소 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사업소 상담실 ● 본사: 8406-765-7 ● 북부: 968-1332-5 ● 인천: 873-4197-7564 ● 수원: 39-6220-1 ● 부산: 531-7575-9 ● 창원: 65-2256-8 ● 대구: 354-5671-3 ● 광주: 528-4806-8 ● 전주: 254-3038, 77-0209 ● 대전: 621-5981-3 ● 청주: 57-1751-2 ● 원주: 42-0401 ● 제주: 47-5914

◇ 교수회 선거관리 위원장을 만나

“유세시 공개질의로 의견수렴 가능할 것”



본교 제13대 총장후보추출일이 이달 15일로 결정됐고 후보자 등록과 유세일정도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이다.

문을 가지고 있는지. = 교수들이 선거를 진행하면 분명히 순위가 드러나지만, 선거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순위추천이 아니다.

독 하기 위함이다. - 이번 선거는 선관위에서 제시한 선거공약에 따라 치러진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 경주 제12대 총학생회 당선자를 만나

“학생들과 다각적 만남 노력할 터”



제12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배문석(별4)군을 만나 당선소감 및 총장선출에 관련된 학생회 전반적 상황을 들어보았다.

면서 내가 내세운 공약들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다. - 공약에 얘기했는데 구체적 내년 사업계획은...

판,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작년 학생회활동과 차이점을 묻다. = 비운동권학생회가 장기적 관점이 없고 순간순간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 학생회는...

직원비대위

13일 단독선거 - 15일 개표 결의

유세청문에 공식질의 알기로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서울, 경주 직원비대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월13일 전체 직원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단독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투표 결과를 법인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므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김윤길 노조위원장도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의 마련이 학내 구성원들간의 대화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면서 여러모로 겪었다”며 “교수회의 일방적 입장으로는 인내 직원들의 단독선거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적 질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했다. 도서관 지원금 사용내역 도서관(관장=김보환·경찰행정학)은 지난해 10월에 받은 교육부 사립대 지원금중 도서관비 2억1천1백70만원, 자구노력지원비 1억, 총 3억1천1백70만원을 지난 12월에 사용했다.

학·전·무·대

사랑받고 싶어임~

○...일산 제3캠퍼스 분산 이전이 재단이사회에서 가결돼 동약이 품문으로 슬렁이고 있다는데

대통령의 개혁

○...대통령의 대폭개혁은 아직도 개혁이 아닌 개혁이다. 다름아니라 영남지역출신인 3분의 1차지라는 특권지역에 쏠린 개혁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역경원 아비달마 5권출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아비달마집이축론, 아비달마종류족론, 아비달마의비바사론 제1권, 제2권 등 총 5권의 책을 출간했다.

불교문화 연구원 불교학보 출간

불교문화연구원(원장=서문경·불교학)은 지난 30일 불교학보 제31집을 출간했다.

논어등 교양선택과목 늘어

‘신화종문’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 올해부터 △논어와 예기 △선과 인간 △명상과 자아 등 3과목이 인문과학 교양선택 과목(2학점)에 개설된다.

상경대 졸업생 장학금 전달

경주캠퍼스 상경대(학장=황은식·회계학) 졸업생일동은 지난 12월 19일 부총장 김갑주(목사학) 교수들 통해 상경대 장학금 및 교육용시설로 써달라며 모금된 1차금액, 1천만 원을 본교에 전달했다.

경주학부위 선거 치뤄

경주캠퍼스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회장·부위원장 선거가 지난 11월 25일 오후4시 실시된결과, 총14명중 13명이 투표해 찬성11표, 반대2표로 남윤수(목사3)·백승우(국제경제2)조가 당선됐다.

남한우(南韓愛)

○...옛날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했다.

최근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집이 폭박하지 않을까 걱정 이 끊이지 않는다고

기나 사람과 근심은 기우(杞憂), 남한 사람의 근심은 남한우(南韓憂)?

○...황량한 소문동장에, 스펀드 없는 온반골 노천강강이 오랫동안 무용지를 이라는데.

알아본족, 애초 스펀드 지리에 유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 착공에 들어가 유물이 발견되자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이에 본 회전문재자 “하고보자는 학교의 무계획성, 과연 대 학방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

오소 라즈니쉬가 보내온 삶의 지혜와 깨달음의 명저, 국내 최초 완역 출간!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TANTRA VISION 탄트라 비전 젊어지는 샘물 「엔돌핀 호르몬」을 얻는다

어머님이 이 편지를 받으실 시간이면 죄 많은 불초소생은 저승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